

PORTFOLIO

수우림

SUULIM

Visual Artist/ 시각예술가

Web: suulim.kr

E : suulim.art@gmail.com

INSTAGRAM : suulim_

수우림, SUULIM

개인전

2023 NG_Found in error, 소촌아트팩토리 큐브미술관
2022 OMZ[Odd MZ], 주안미술관

단체전

2025 빛으로 이어지는 여정, 소촌아트팩토리 큐브미술관
2024 "Beyond the horizon" in New York, Paris Koh Fine Arts
2024 틴들 효과, 산수미술관
2024 도시의 유목민,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 분관
2023 소립자_particle world, 향유갤러리
2023 After decades, 산수미술관
2023 청년의 향해, 광주가톨릭평생교육원 갤러리 현
2023 양림골목비엔날레, 양림동미술관거리 (펭귄미술관)
2023 보물찾기: 빼앗긴 호기심을 찾아서, 광주롯데갤러리
2022 예술로, 더 나은 내일을 바라보다, 전일빌딩 245 시민갤러리
2022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영미술관 제3전시실
2022 VERDANT, 515 갤러리
2022 아시아의 어젠다 아시아의 예술,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아시아문화광장 특별부스)
2022 북구아트페스티벌, 광주비엔날레관 5실
2022 첫·시작, 대인예술시장 한평갤러리
2022 작가장터 245, 전일빌딩 245 시민갤러리
2022 청년 아트로 1939, 광주청년센터
2021 별이다! 展, 미노갤러리
2020 인디고 차일드, 이안갤러리
2020 경로를 찾을 수 없습니다, 금호갤러리
2020 시시시작, 조강훈 아트스튜디오
2019 조형21 광주문화유산의 숨결을 찾아서, 금호갤러리
2019 경계인, 전남대학교 용지관

2018 이유 있는 동행展, 보성 군립 백민 미술관 제1전시실

프로젝트

2025 PEER UP, DDF
2025 2025 RESEARCH LAB, Over Lab_
2025 광주 양림-영국 웨일즈 국제교류프로그램 장소특정형(Site-Specific)
전시
2022 도시재생뉴딜사업 아이디어얼라이즈, VSTP프로젝트_버던트팀
2022 BRAND NEW ASIA 참여작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레지던시

2025 충장22 팔방미인 레지던시
2024 대인예술시장 레지던시 링크 3기
2023 광주시립미술관 레지던시 청년예술인지원센터
2022 대인예술시장 레지던시 링크 1기

수상

2019 제35회 무등미술대전 양화부문 입선
2018 제31회 광주미술대전 서양화부문 입선

아트페어

2024 아트광주24, 김대중컨벤션센터
2023 아트광주23, 김대중컨벤션센터
2023 아트로 놀자, 인서리공원. 남부학술림관사. 구루커피
2022 순천 에코아트페어 E.A.T, 순천만 국가정원 국제 습지센터
2020 아트광주20 상생프로젝트 #다내꺼페스티벌, 향담갤러리

'편견'

일부만 보고 모든 것을 안다는 듯 잘못된 판단을 범하는 사람들이 있다. 한 사람에 대해 본인 혹은 가장 가깝다 여겨지는 사람 조차도 완벽히 알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나의 일부만 보고 전체를 판단하려 한다. 이러한 상황에 무력감이 든다. 작품의 주제는 편견과 잘못된 판단에 대한 것이다. 자주 당한다고 느끼며 누구나 한번쯤은, 혹은 지금 이 순간에도 겪고 있을 것이다.

편견과 판단에 있어 숫자는 논의할 만한 주제이다. 숫자라는 것은 쉽게 비교할 수 있는 도구이기에 우리가 무언가 판단을 내릴 때 유용하게 사용된다. 예로 등수, 성적, 치수 등이 있다. 편리한 점도 존재하나 이는 사람을 쉽게 판단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측면도 존재한다. 숫자적인 부분을 모조리 변화시키고 싶기보다 그것이 넘볼 수 없는 영역인 우리의 다양성과 다름에 집중하고 싶다.

작품이 유동적으로 보이거나 매체를 훌러내리는 표현방식을 사용해 작업한다. 숫자가 아닌 유동적이거나 변형 가능한 것은 비교하기 어려우며, 취향의 차이만 존재할 뿐 순위를 매길 수 없게 된다. 그림을 그리다 보면 물감이 원하는 곳이 아닌 위치에서 훌러내릴 때가 있다. 그것을 오류라고 간주하지 않고, 훌러내리는 물감의 모습을 보며 당당함과 자연스러운 매력을 느꼈다. '나는 나고 우리는 그저 우리고 그냥 훌러가는 거야'라고 주장하는 것 같다.

다름을 인정하는 것은 사랑의 시작이다.

고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나의 다름을 인정해 주는 것이다.

우리의 고통은 대부분 비교에서 온다.

다름을 부정적으로 사용했을 때 발현되는 것이므로,

나의 다름을 이해하고 남들의 다름을 이해해야 한다.

타인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나의 다름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러한 다양성이 다른 사랑을 만들어낸다.

*Crack Series

Flowing mountain 시리즈를 제작하던 시절, 화면에 생긴 크랙은 눈에 거슬렸고, 없애고 싶었다. 크랙미디움을 써서 만든 균열이든, 안료의 보관 상태로 인해 자연스럽게 갈라진 것이든, 그 둘의 구분이 모호해질수록 나는 진실성을 의심했고, 결과물은 어색하고 매력이 없다고 여겼다. 의도했지만 의도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오히려 그 반대일 수도 있어 혼란스러웠다. 현재의 나에게 크랙미디움은 다른 존재이다.

크랙미디움은 기묘한 재료라 자꾸 꺼내보게 된다. 누군가는 피하고 싶어 하는 '결함'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이 미디움은, 징그럽고 간지러운 감각을 주면서도 시선을 붙잡는다. 나는 이 갈라진 표면 속에 특정 색이 보이게끔 한다. 때로는 그 색이 위로처럼 느껴지고, 때로는 상처를 더욱 부각시키는 행위처럼 느껴진다. 색면을 먼저 구축한 뒤 그 위에 크랙을 올리면, 감춰졌던 색이 틈 사이로 드러난다.

이 균열이 회복의 흔적인지, 아니면 점점 깨져가는 과정인지에 대한 판단은 유보된다. 균열은 느끼는 사람마다 다르게 읽힌다. 누군가는 아물어가는 상처로, 누군가는 이제 막 금이 간 상태로 받아들인다. 나 역시 작업을 하며 끊임없이 묻는다. *나는 일부러 드러낸 것인가? 아니면 약해서 갈라진 것인가? 이것은 회복인가, 파괴인가?*

나는 오류, 결함, 불균형, 유용함과 무용함 사이의 경계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크랙은 그 경계의 생생한 시각적 은유다. 사람들은 보통 금이 가는 것을 막으려 한다. 실패를 방지하고, 균열을 봉합하려 한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실패와 파괴를 '재현'하는 기술도 존재한다. 크랙미디움은 모순의 덩어리다. 파괴를 조형적으로 연출하고, 통제 가능한 방식으로 실패를 다루려는 인간의 욕망이 드러난다.

그런 모순된 이중성에 끌린다. 사랑과 증오, 혐오와 아름다움, 회복과 파괴, 진짜와 가짜. 기술이 발전할수록 사람들은 대면 소통을 잃고, 중독과 불신, 감정 소외의 부작용을 겪는다. 혈액은 생명에 소중하지만, 밖으로 흘러나올 때는 혐오스럽게 느껴진다. 운동은 일부러 상처를 만들고, 그 회복 과정을 통해 근육이 자란다. 이 모든 것은 역설과 회복의 구조를 품고 있다. 본 작업도 그러하다. 진짜와 가짜의 경계가 모호할 때 진실성은 훼손되지만, 때로는 더 강하게 드러날 수도 있다. 때로는 형식보다 의도를 통해 감춰진 이야기를 비틀어 드러내는 그 '틈'에서 의미를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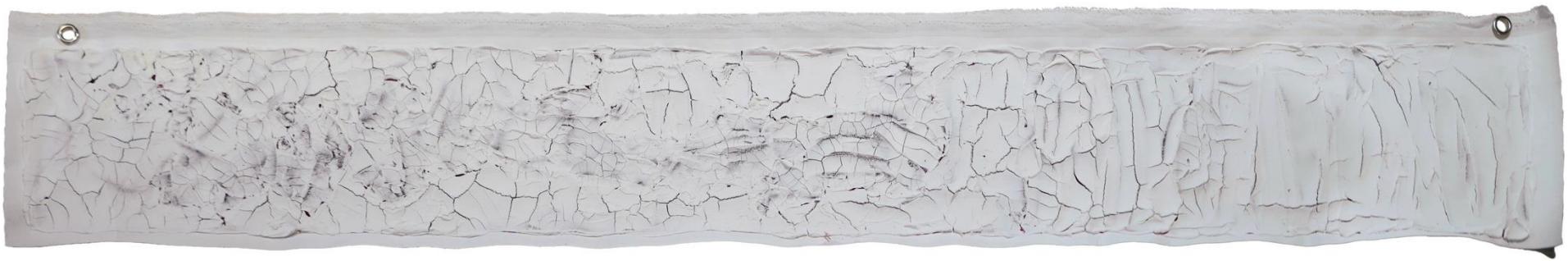
크랙은 계속해서 말을 건다. 매끄러운 표면보다 말이 더 많다. 그 틈에서 어쩌면 진짜 내가 드러나는지도 모른다. 그 말들을 따라가며 작업한다. 그리고 그 갈라진 화면 위에서, 긴장상태에서, 다시 나 자신과 마주하며 타자와 연결된다.



<Crack1> Acrylic, crackle medium, Gel stone on canvas 40.9x31.8cm 2025



<Crack2> Acrylic, crackle medium, Gel stone on canvas fabric 47x21cm 2025



<Crack3> Acrylic, crackle medium, Gel stone on canvas fabric 24x155cm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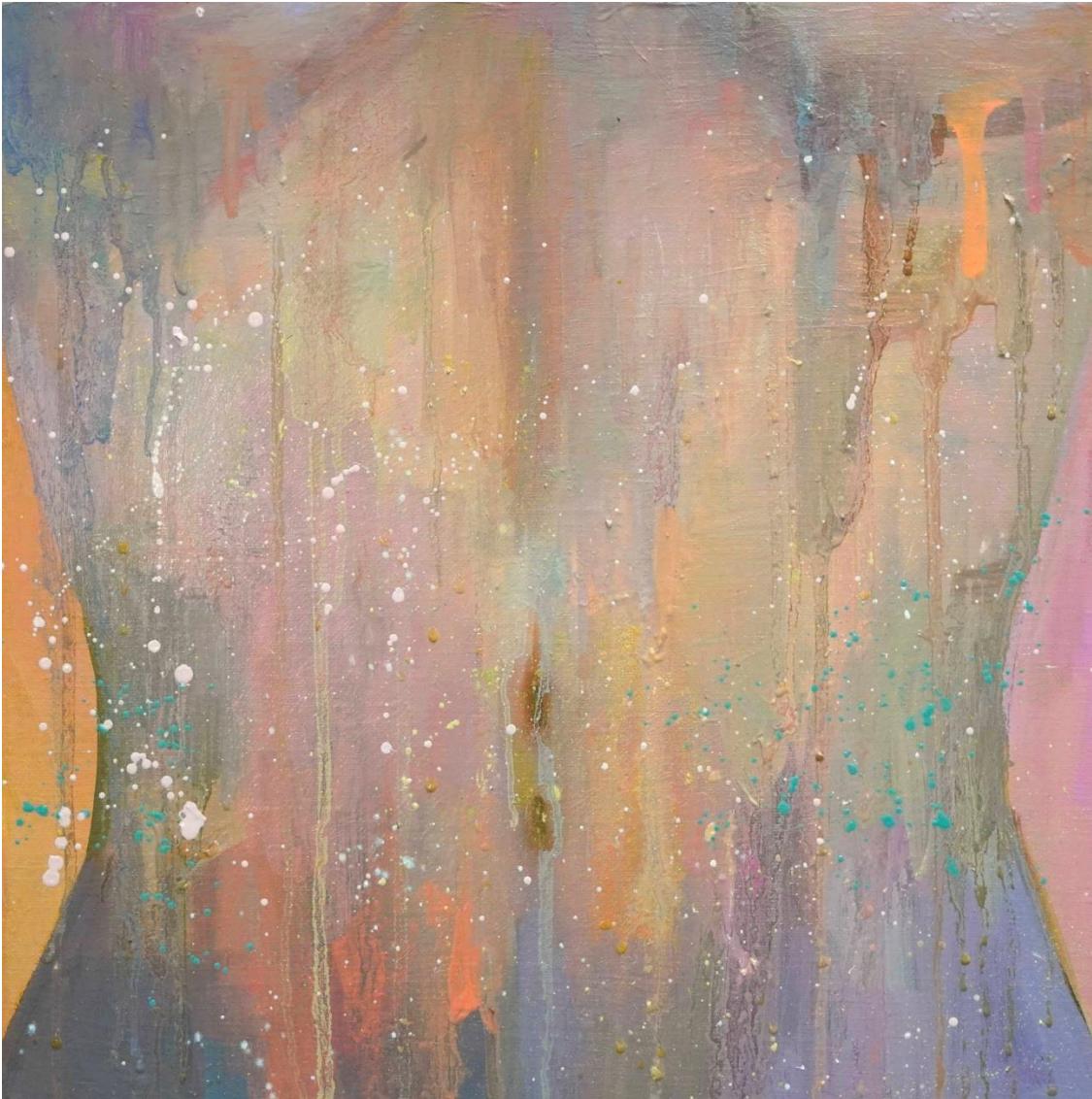
*신체 조각 Series

신체 중 부분이 담겨 있다. 처음 신체 조각을 찰나에 마주할 때는 인식하기 어렵지만, 지속해서 관찰하다 보면 일부분이 조금 다르다 느낄 수 있는 신체를 접할 수 있다. 그것이 빠르게 알아차려 기보다 자연스럽게 우리의 시선을 스쳐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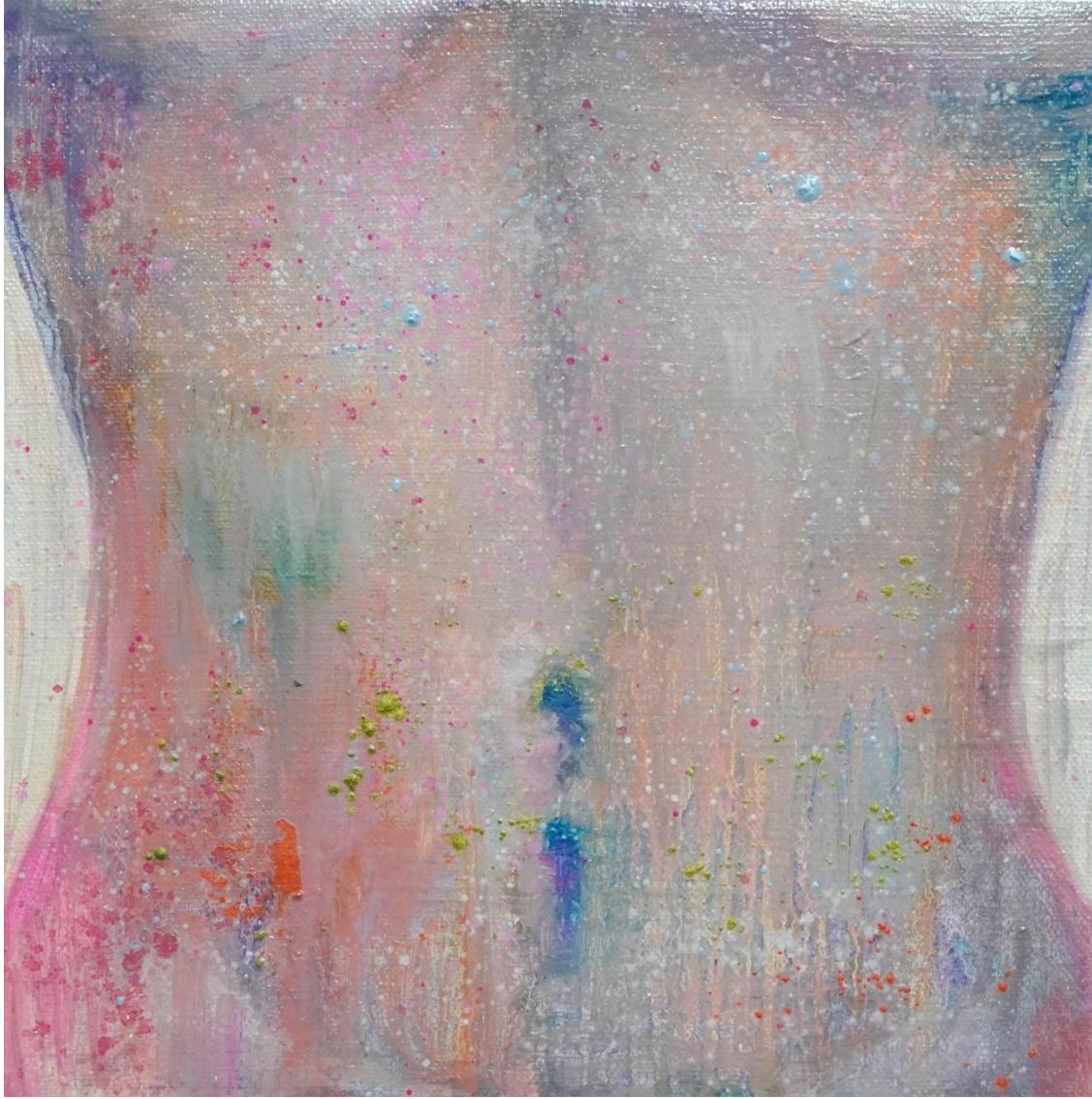
이 작품은 한 장애인단체를 방문한 경험에서 영감을 받았다. 처음 그곳을 방문했을 때, 모두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인 줄 알았지만, 시간이 지나며 한 사람이 비장애인임을 알게 되었다. 이 사실은 스스로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고정관념으로 인해 인식이 완전히 바뀔 수 있으며 사실 또한 왜곡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선입견의 무서움을 이야기하면서도, 자신의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아름다운 발견을 할 수 있는 가능성에 힘입어 탐구하는 작품이다.



<신체 조각1> Oil, glitter on Canvas 60.6x60.6cm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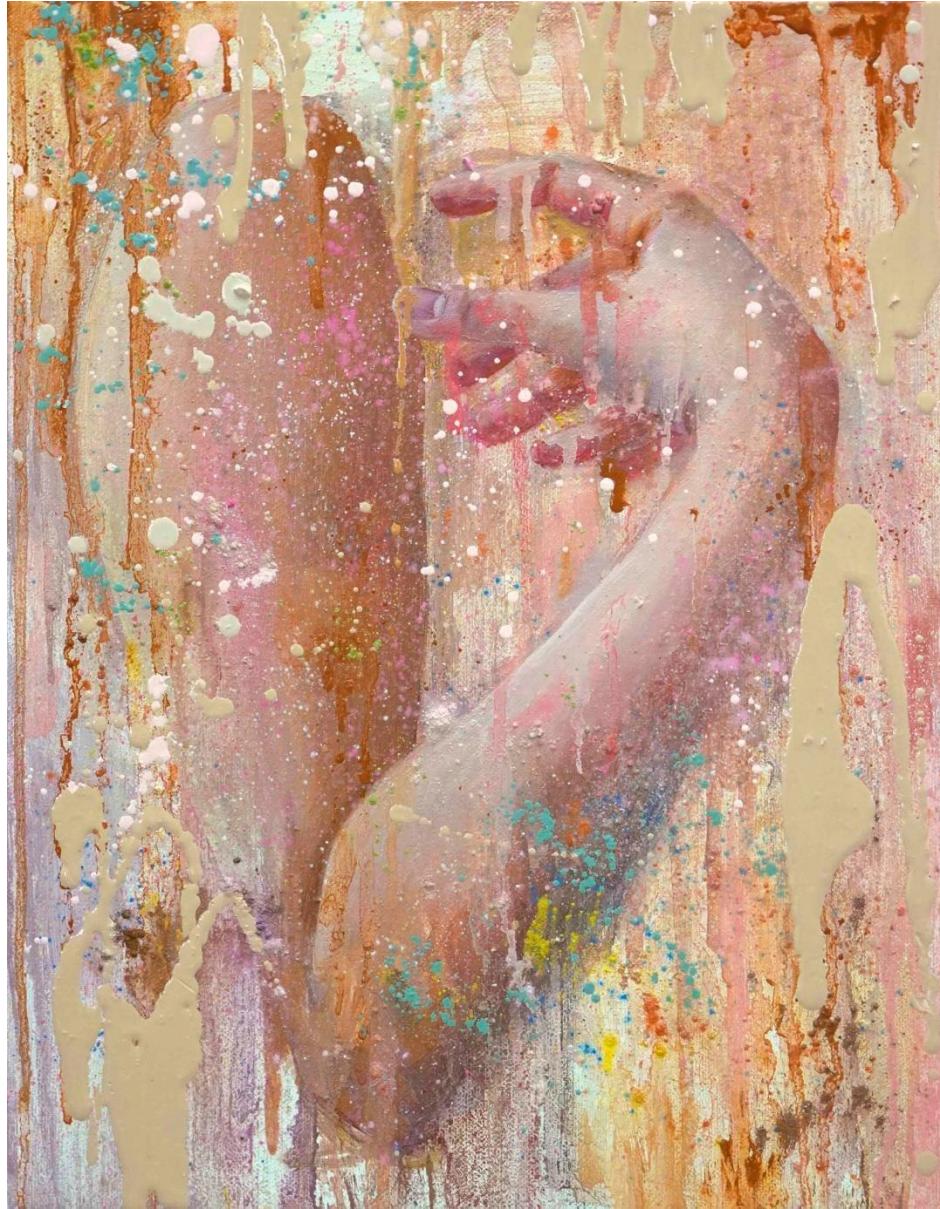
<신체 조각2> Oil, glitter on Canvas 37.9x37.9cm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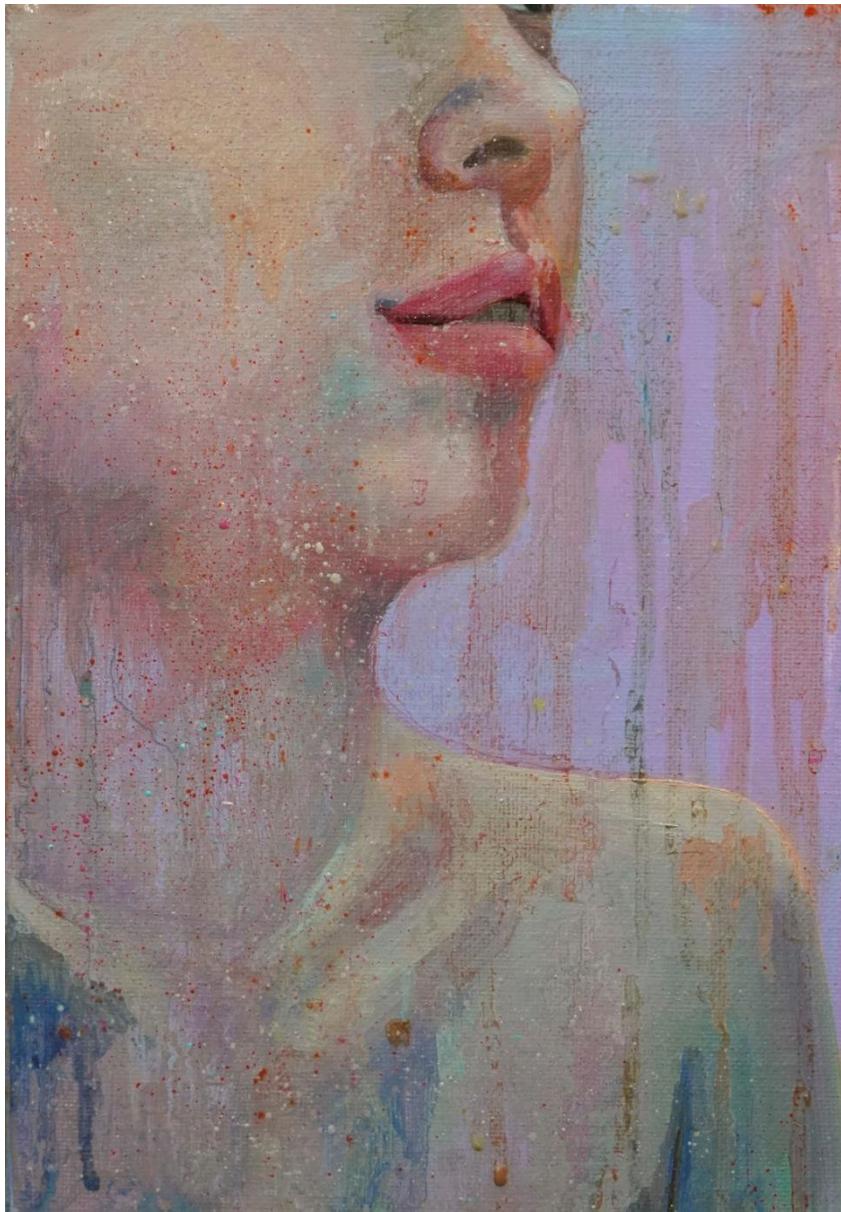
<신체 조각3> Oil, glitter on Canvas 27.3x27.3cm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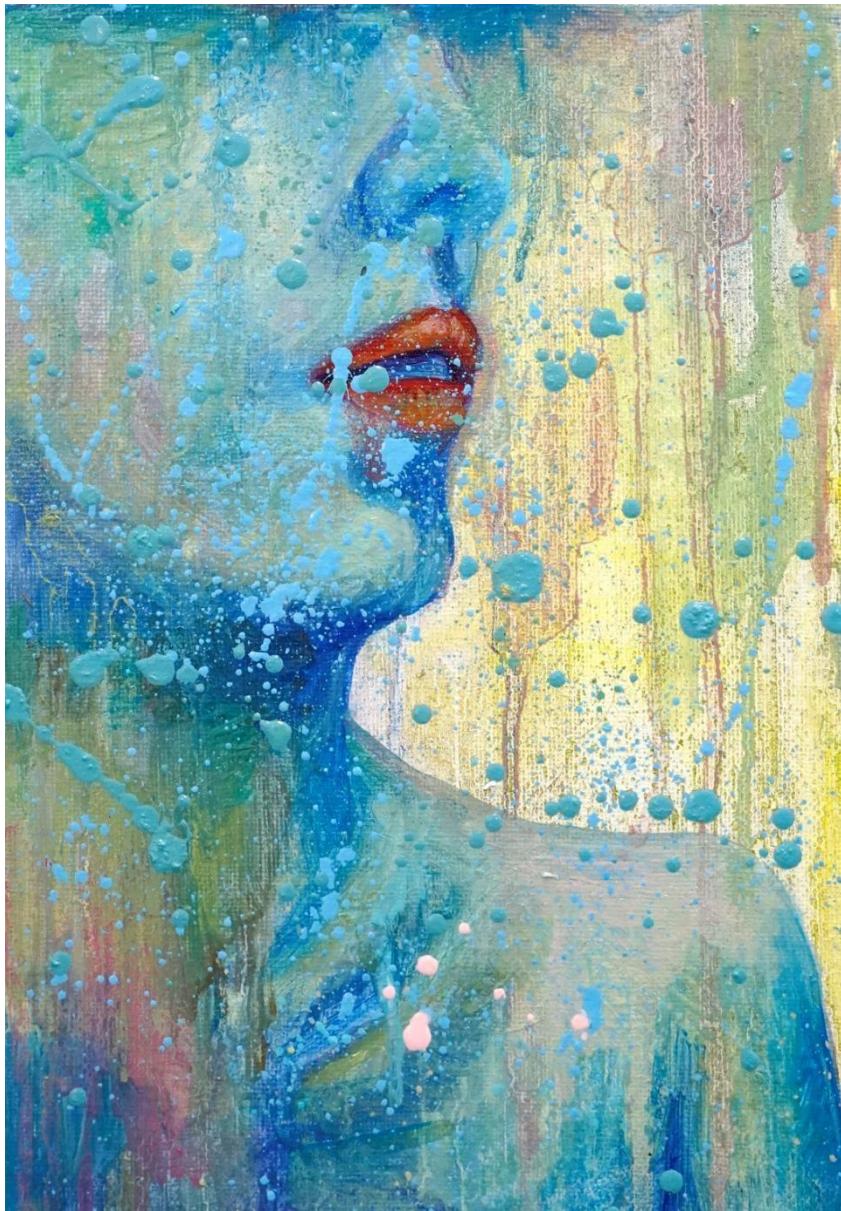
<신체 조각4> Oil, glitter on Canvas 40.9x31.8cm 2023



<신체 조각5> Oil, glitter on Canvas 40.9x31.8cm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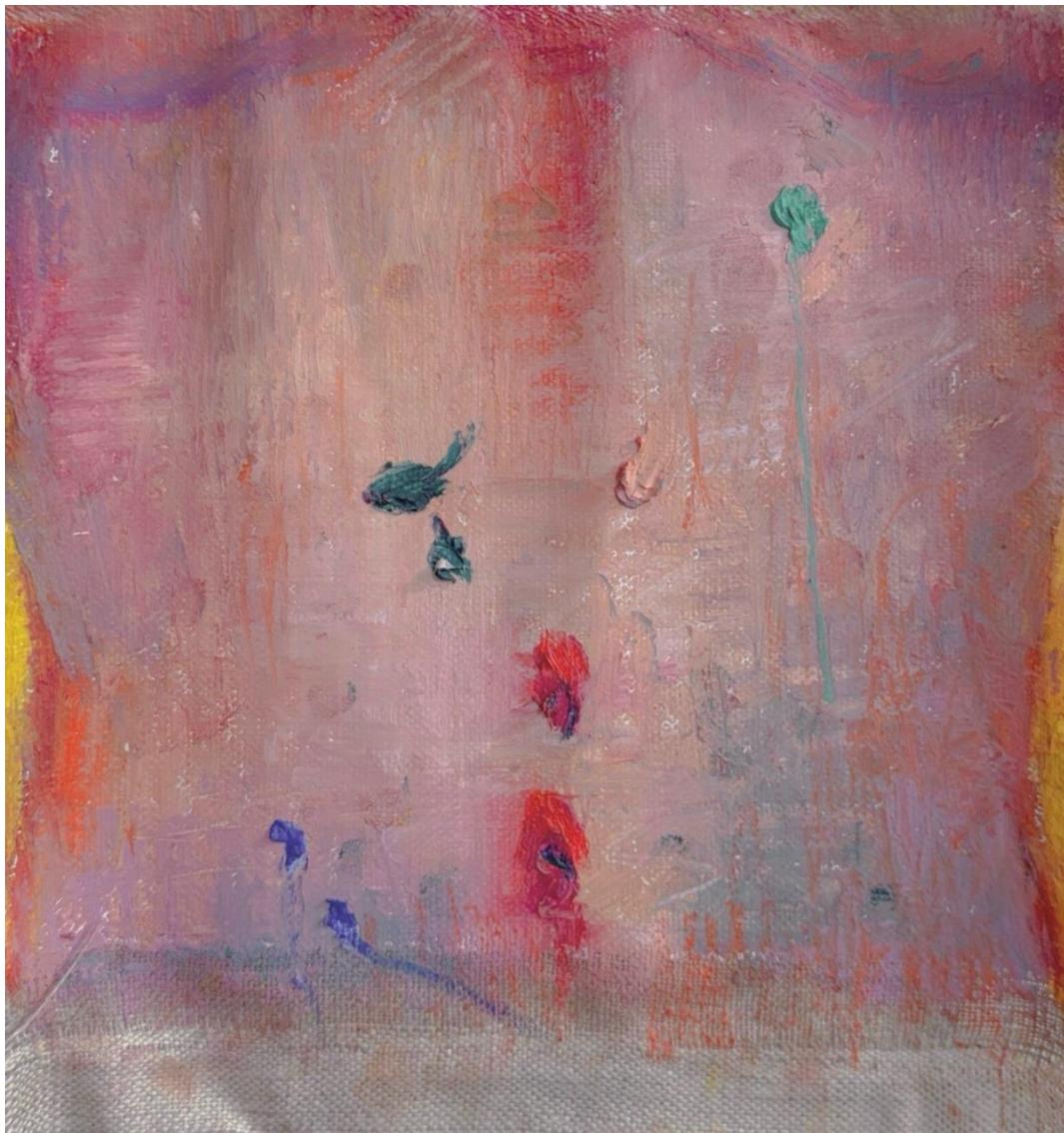
<신체 조각6> Oil, glitter on Canvas 25.8x17.9cm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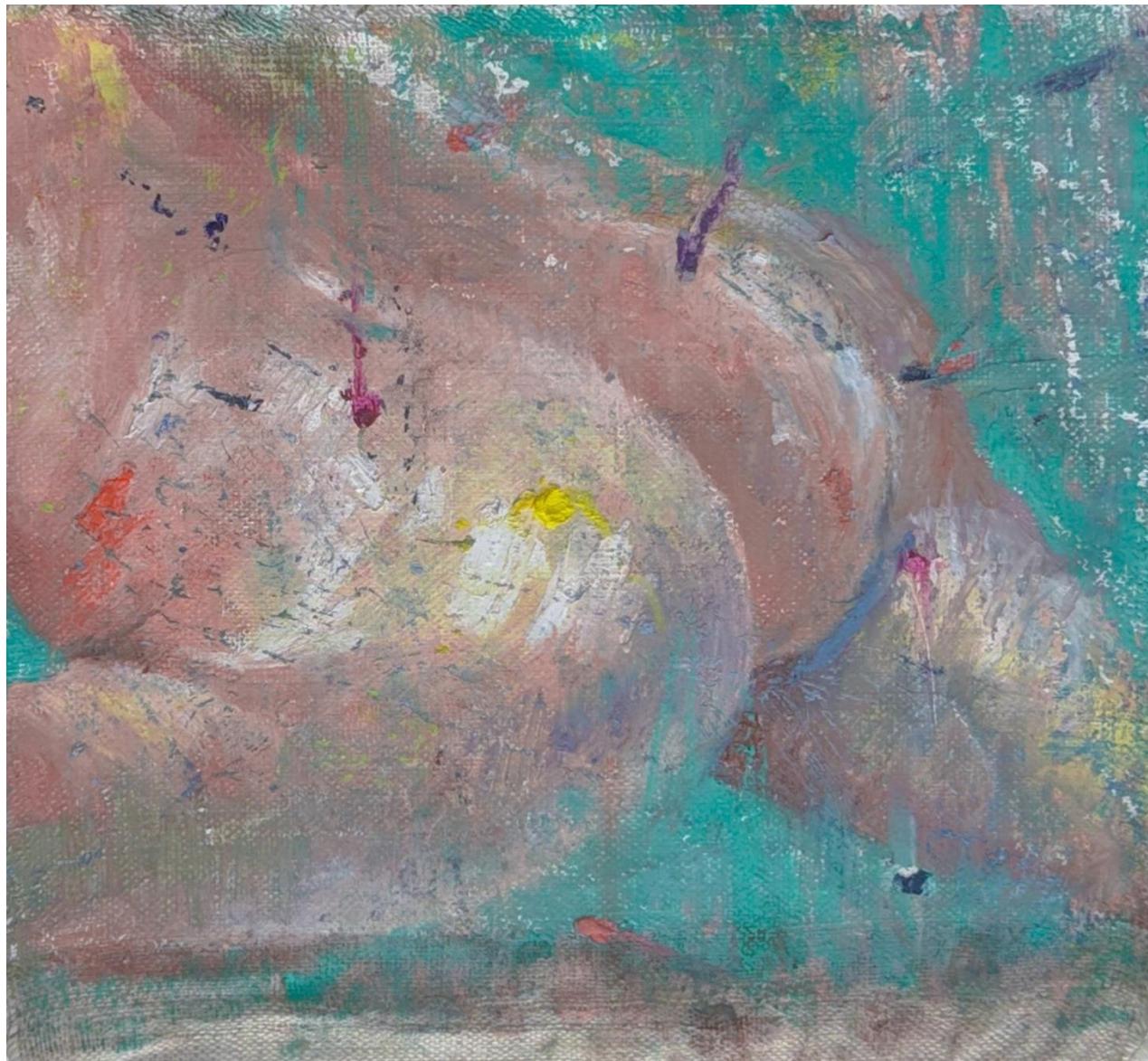
<신체 조각7> Oil, glitter on Canvas 25.8x17.9cm 2023



<신체 조각8> Oil, glitter on Canvas 53x45cm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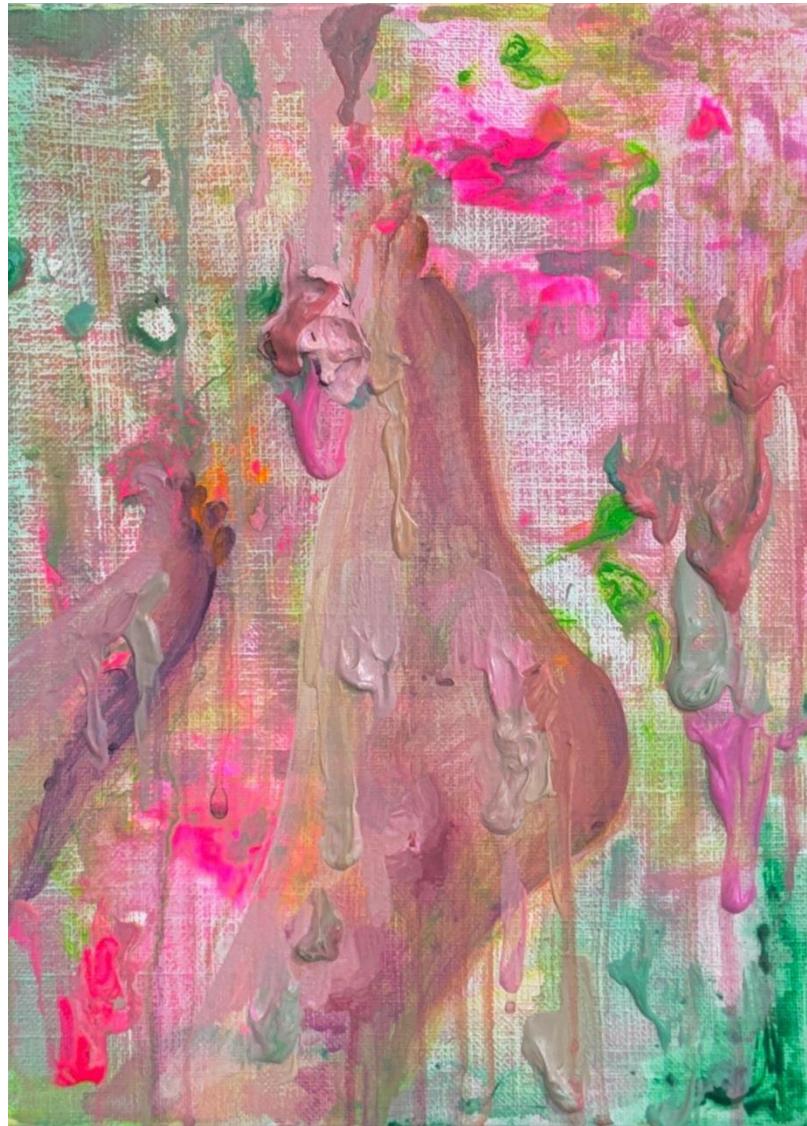
<신체 조각9> Oil pastel 21x19cm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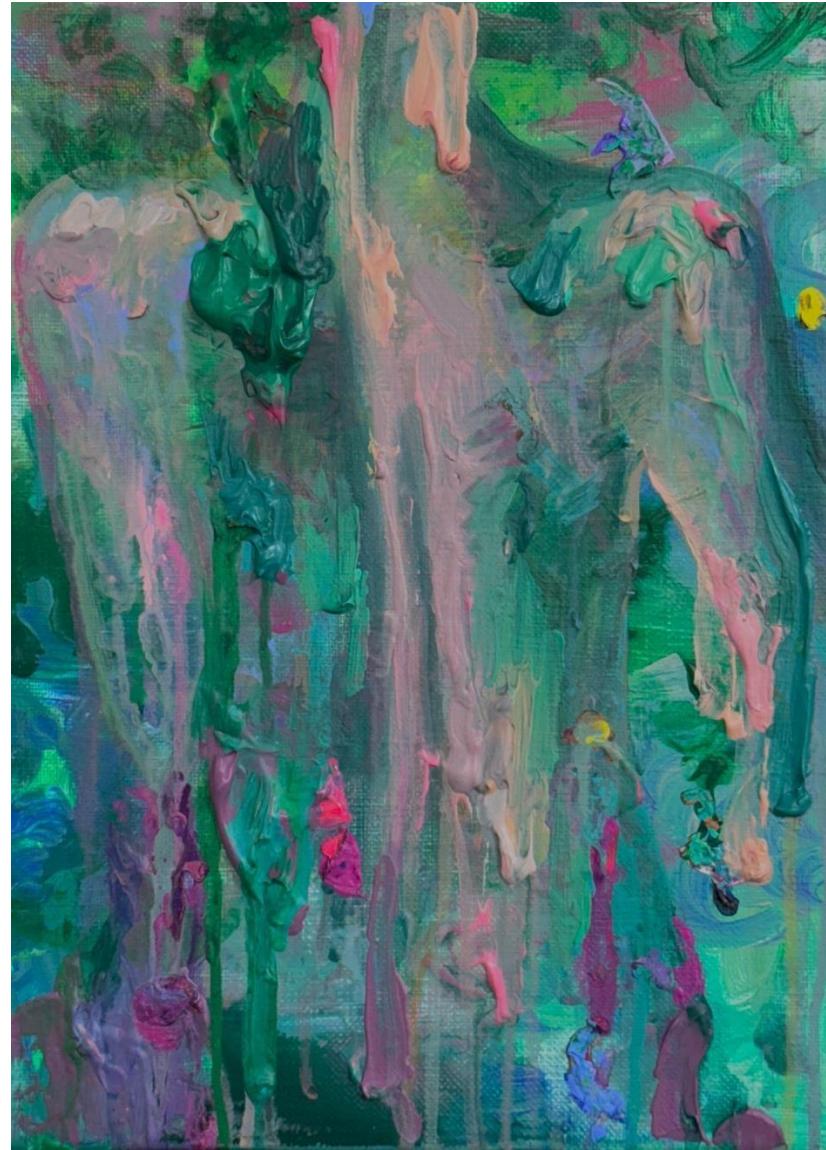
<신체 조각10> Oil pastel 20x21cm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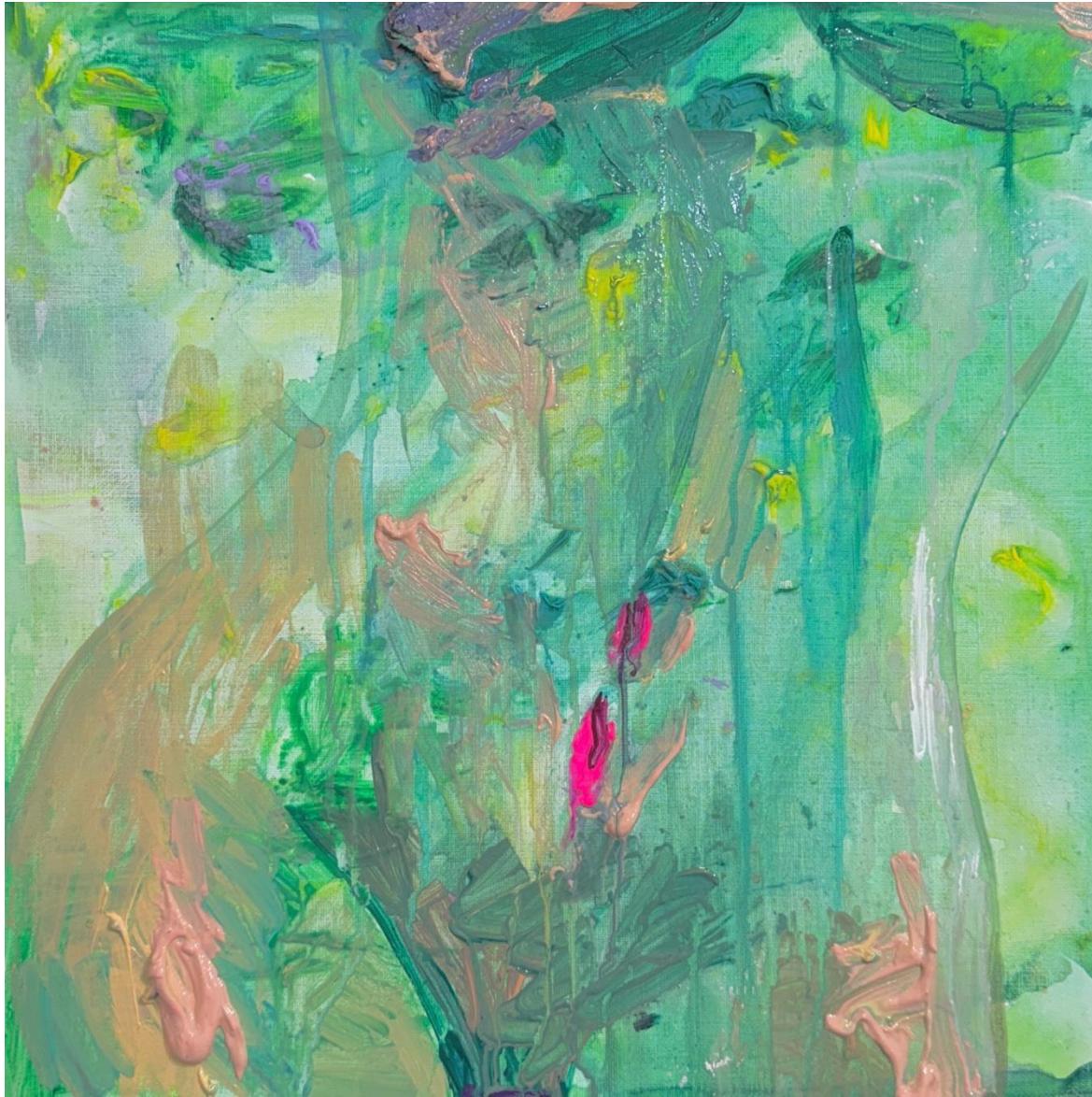
<신체 조각11> Oil pastel 20x21cm 2024



<신체 조각12> Acrylic on Canvas 33.4x24.2cm 2024



<신체 조각13> Acrylic on Canvas 33.4x24.2cm 2024



<신체 조각14> Acrylic on Canvas 45.5x45.5cm 2024

*조작된 자연 Series

자연은 우리의 거울과도 같은 존재다.

자연에는 완벽하게 동일한 것이 존재할 수 없으며, 이는 우리 와도 유사하다.

전 세계 곳곳의 숲마다 각기 다른 모습을 지니고, 숲 안의 여러 나무들, 나무에 붙은 무수한 나뭇잎 중 어느 하나 동일하지 않다.

이러한 자연을 캔버스에 담는다.

캔버스에 자연을 담는 과정에서 그 세계에 무수한 조작이 가해진다.

눈으로 자연을 감지하고 그것을 사진으로 찍을 때 대상 본연의 모습과 달라지게 되는 조작이 가해지고, 사진을 보며 다시 그림으로 옮길 때, 물감을 선택할 때도, 완성된 작품을 바라볼 때도 모든 순간마다 조작과 주관적인 인식이 반영된다.

이렇듯 어떠한 대상을 인식할 때는 많은 조작과 주관이 끊임없이 적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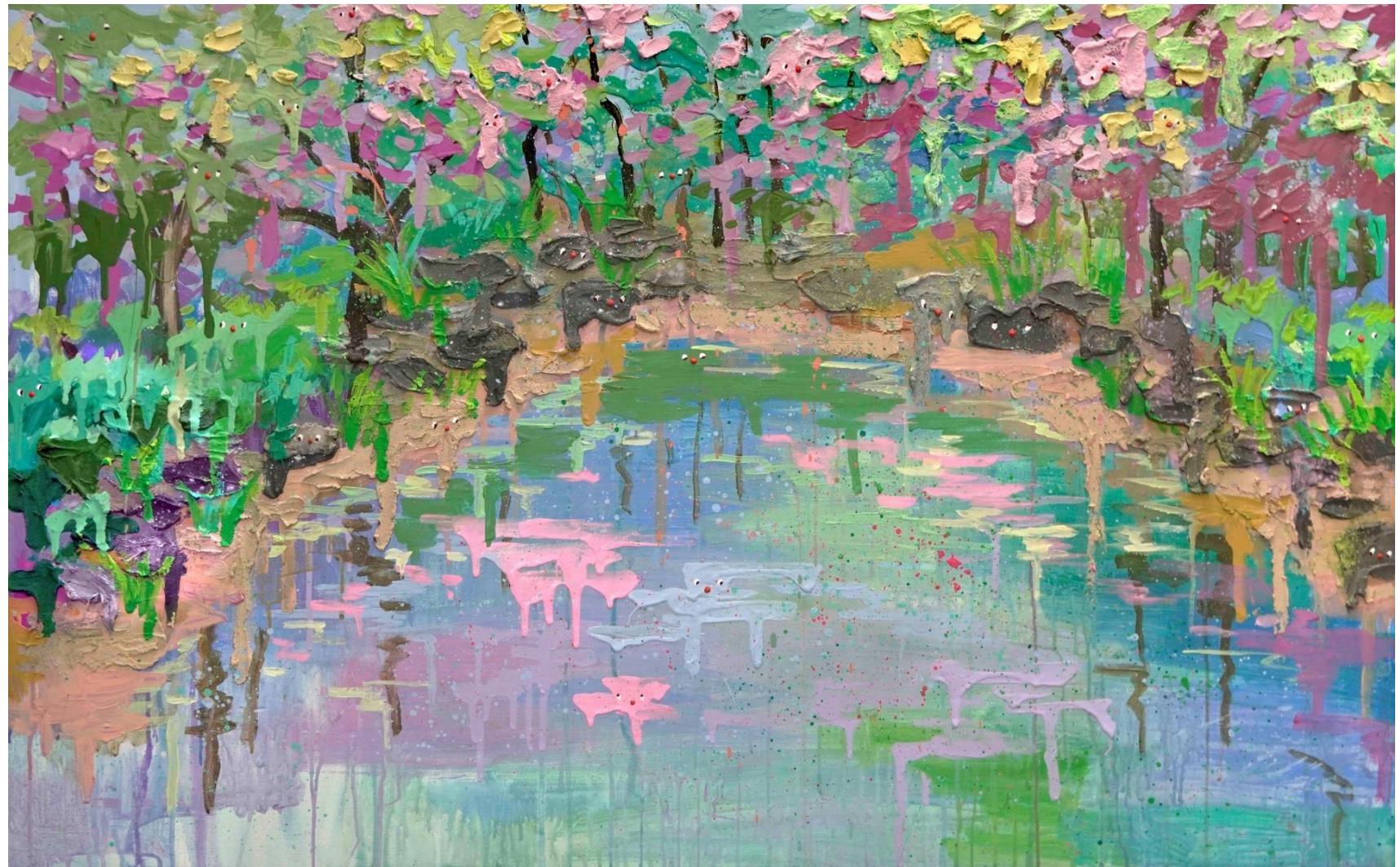
이 과정은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다.

자연을 캔버스에 담는 과정에서 타인을 바라보는 방식과 유사함을 발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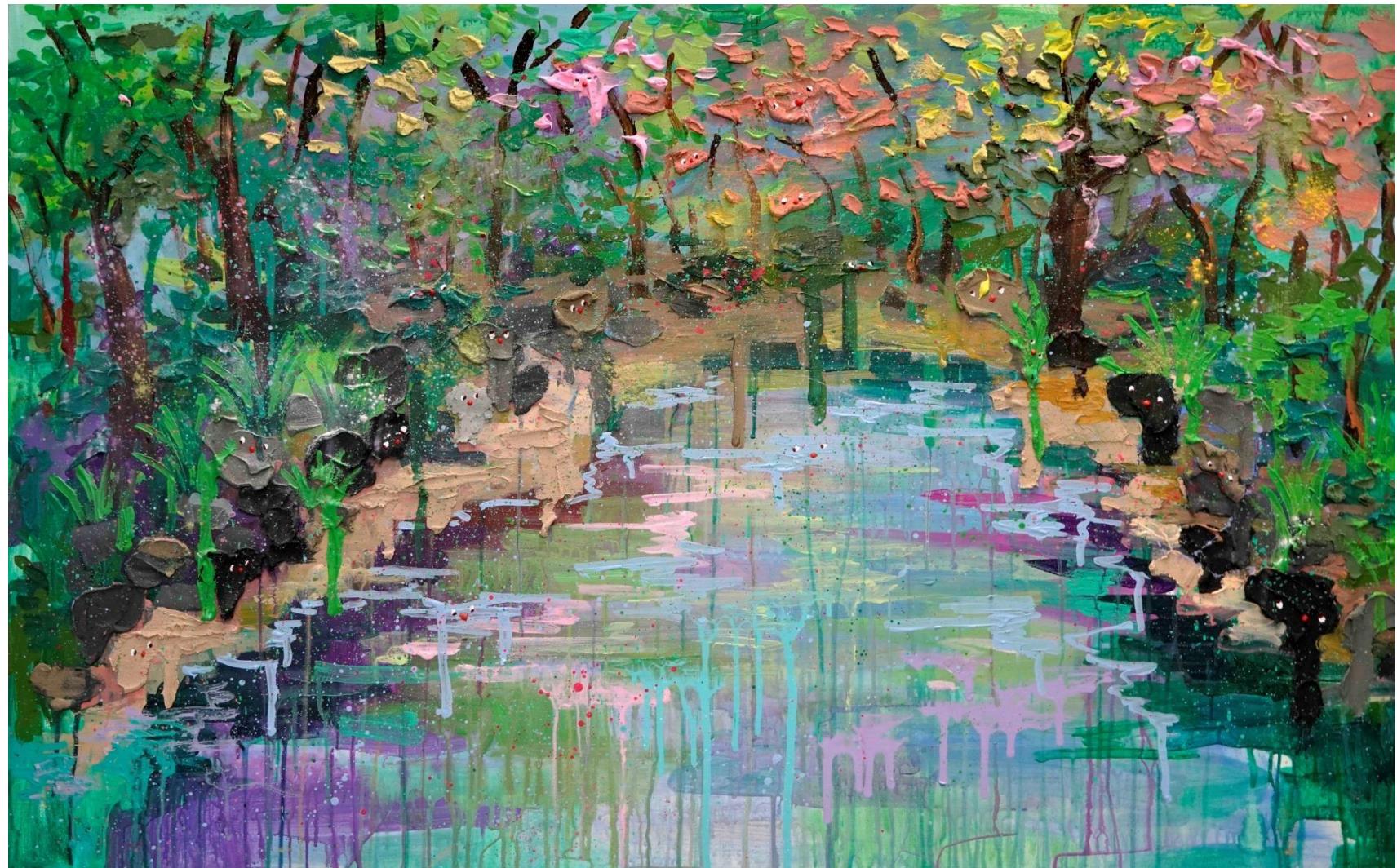
그리는 대상인 자연을 인간의 손길을 거친 자연을 선택했다. 온전한 자연(사람의 힘이 더해지지 아니하고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거나 우주에 저절로 이루어지는 모든 존재나 상태)이 아닌 공간이다. 자연처럼 보이지만 인간의 손길이 닿은 자연을 대상으로 하여, 이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인식하고, 조작하는지 다시금 되새겨보도록 메시지를 강화한다.



<조작된 자연1> Acrylic, acrylic medium, glitter on Canvas 112.1x162.2cm 2023



<조작된 자연2> Acrylic, acrylic medium, glitter on Canvas 72.1x116.8cm 2023



<조작된 자연3> Acrylic, acrylic medium, glitter on Canvas 72.1x116.8cm 2023



<조작된 자연4> Acrylic, acrylic medium, glitter on Canvas 60.6x72.7cm 2023



<조작된 자연5> Acrylic, acrylic medium, glitter on Canvas 53x65.1cm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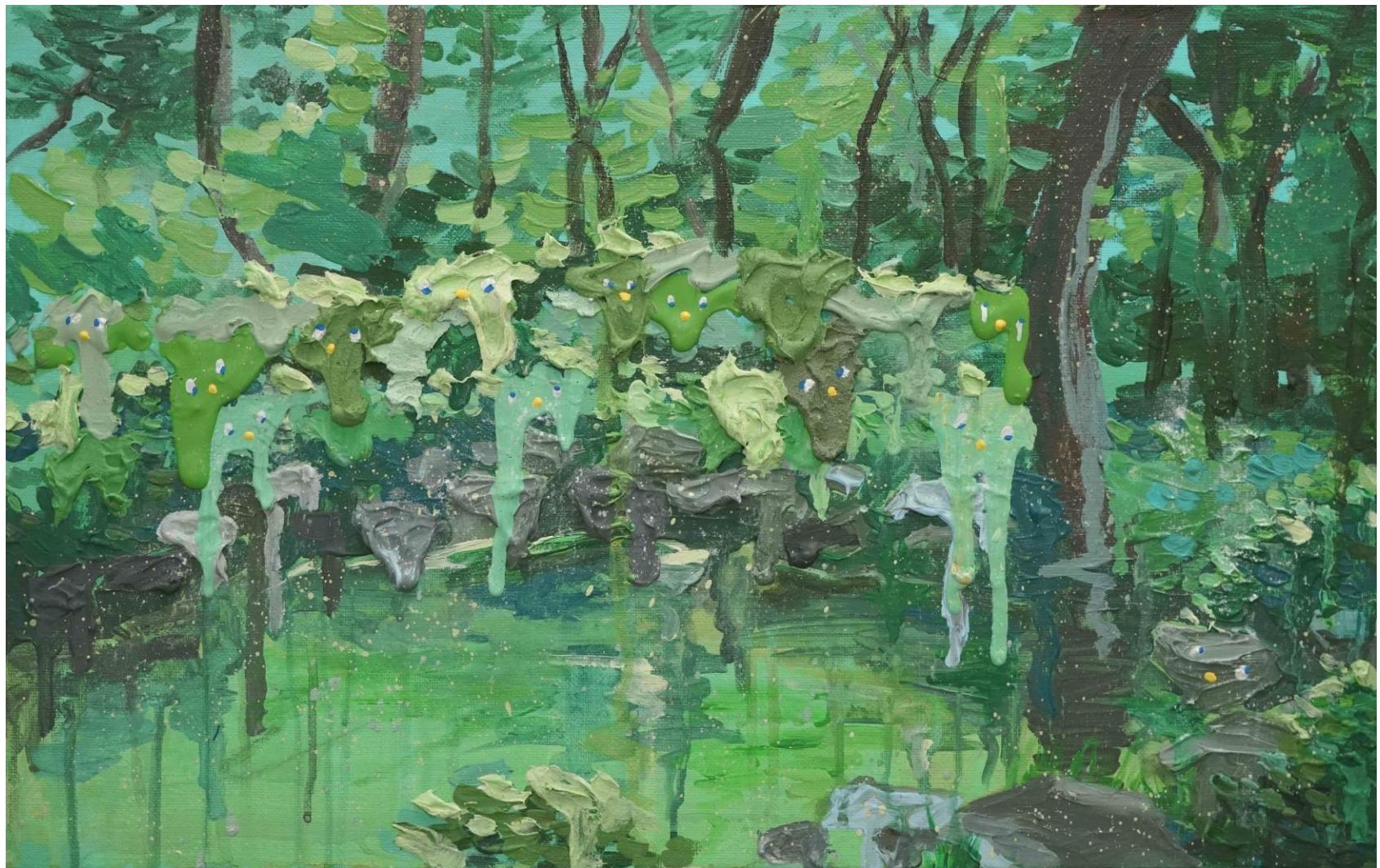
<조작된 자연6> Acrylic, acrylic medium, glitter on Canvas 50x65.1cm 2023



<조작된 자연7> Acrylic, acrylic medium, glitter on Canvas 50x65.1cm 2023



<조작된 자연8> Acrylic, acrylic medium, glitter on Canvas 33.4x53cm 2023



<조작된 자연9> Acrylic, acrylic medium, glitter on Canvas 33.4x53cm 2023



<조작된 자연10> Acrylic, acrylic medium, glitter on Canvas 33.4x53cm 2023



<조작된 자연11> Acrylic, acrylic medium, glitter on Canvas 37.9x45.5cm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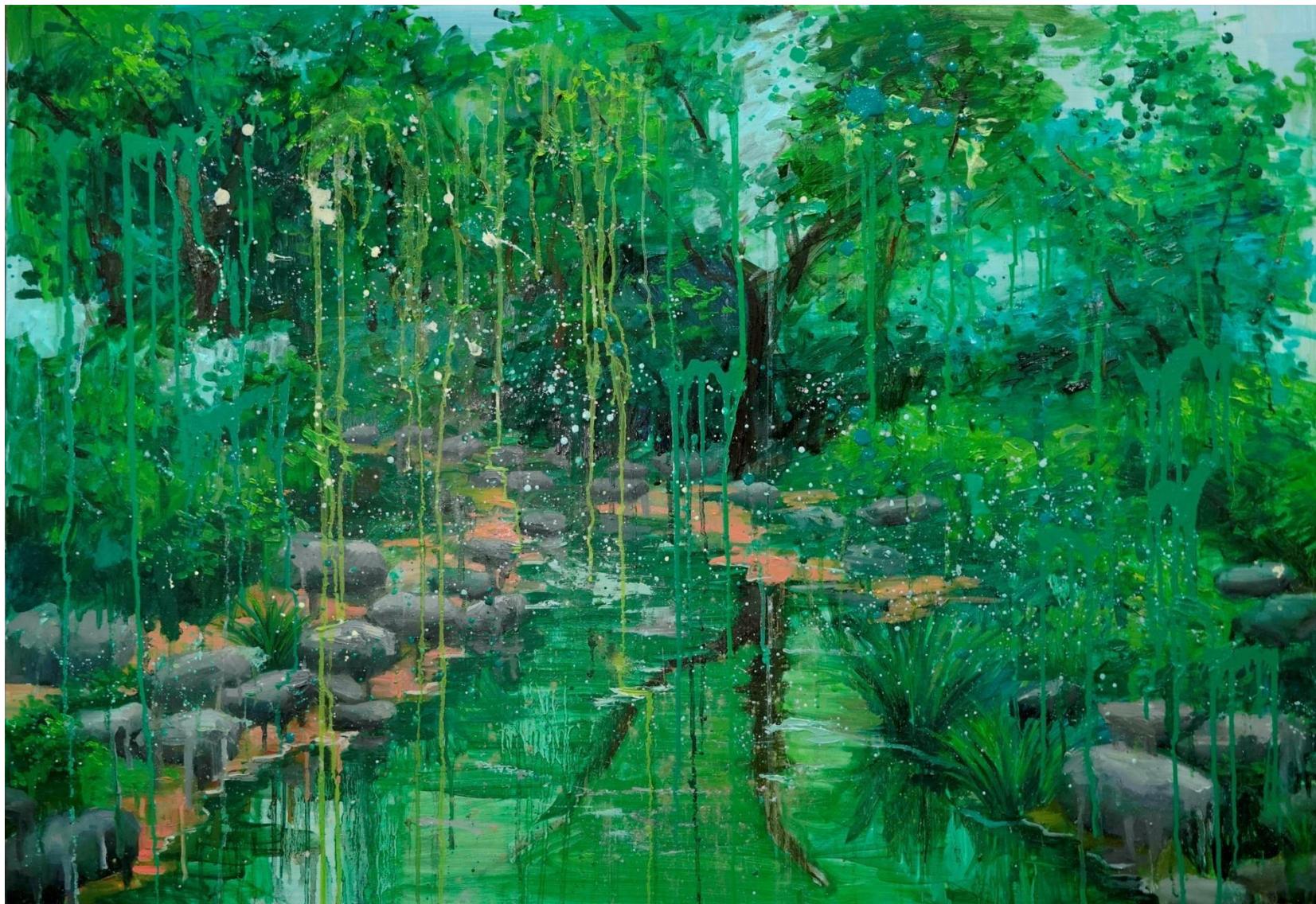
<조작된 자연12> Acrylic, acrylic medium, glitter on Canvas 37.9x45.5cm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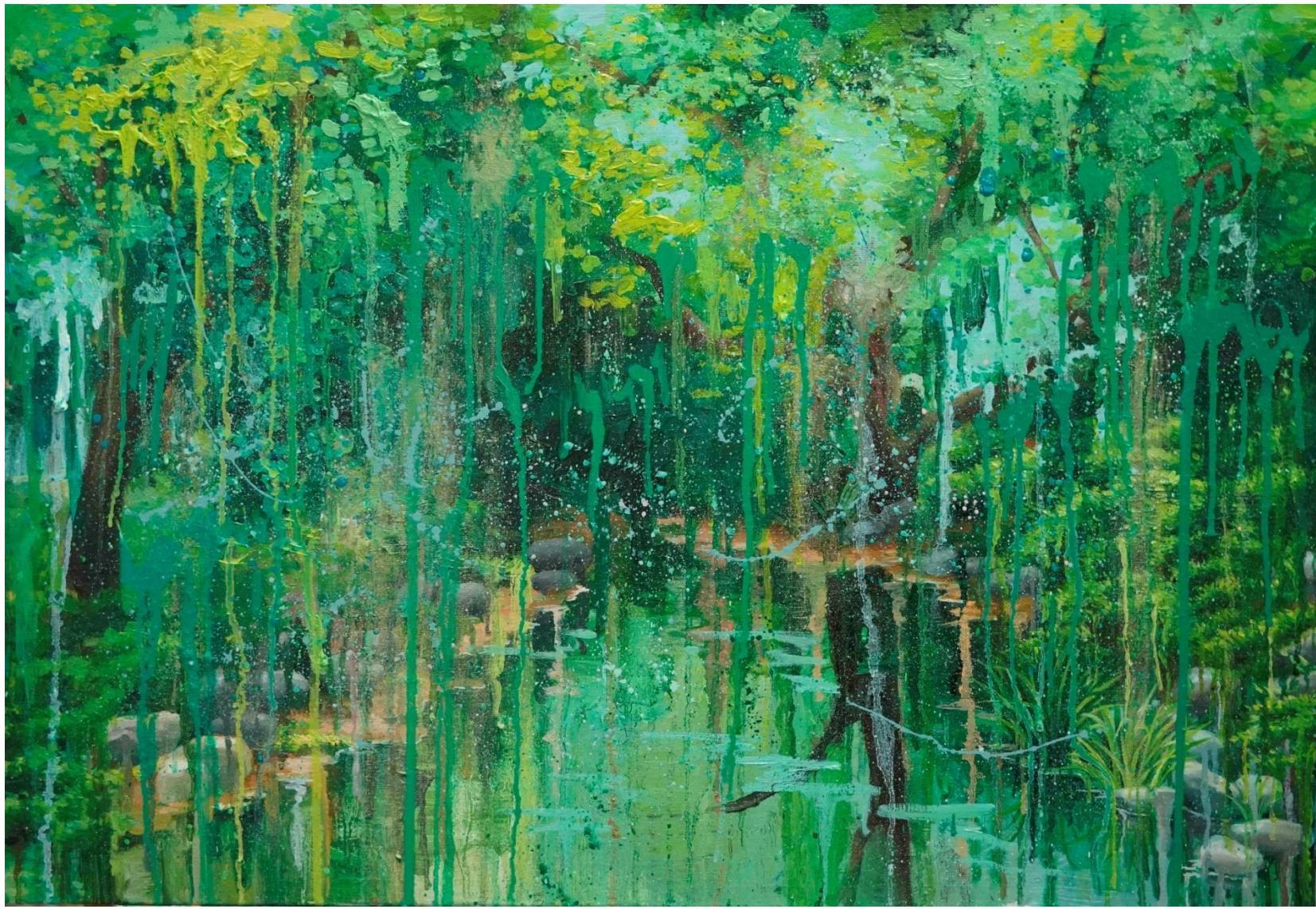
<조작된 자연13> Acrylic, acrylic medium, glitter on Canvas 31.8x31.8cm 2023



<조작된 자연14> Acrylic, acrylic medium, glitter on Canvas 31.8x31.8cm 2023



<조작된 자연15> Oil, glitter on Canvas 80.3x116.8cm 2023



<조작된 자연16> Oil, glitter on Canvas 50x72.7cm 2023

***Gum Series**

바닥에 눌어붙고 밟힌 껌을 보면 안쓰럽다.

왠지 모르게 누군가와 닮아있다는 불쾌한 생각이 든다.

Gum7 Polymer clay, acrylic 0.7x3x3cm 2023



Gum8 Polymer clay, acrylic 0.4x3.5x3.3cm 2023



Gum10 Polymer clay, acrylic 0.6x4x4cm 2023

Gum3 Polymer clay, acrylic 0.3x4x3.5cm 2023



Gum9 Polymer clay, acrylic 0.7x3.3x3cm 2023

Gum4 Polymer clay, acrylic 0.4x3.5x3.5cm 2023



Gum6 Polymer clay, acrylic 0.5x4.2x4cm 2023

Gum5 Polymer clay, acrylic 0.7x3.5x3.5cm 2023



Gum1 Polymer clay, acrylic 0.3x3.5x4cm 2023

Gum2 Polymer clay, acrylic 0.5x4x3.8cm 2023



* 無用之用(무용지용) Series

쓸모없다 생각한 어떠한 것에 대해 다른 시각을 부여했을 때 새로운 가치를 배우게 된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한 작품 시리즈이다. 학부생 시절, 캔버스 위에 그림을 그린 후 실로 꿰매는 작업을 했다. 이를 본 한 교수님께서 실로 작품 제작하면 취약하고 보관에도 어려우니 되도록 지양하라는 조언을 받았다. 당시 반발심과 호기심 등 여러 이유로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실로 하는 작업을 계속 이어나갔다. 어느 날 그 작품 위에 젯소를 쏟은 사건이 있었다. 교수님의 말씀대로 캔버스 앞부분은 쉽게 닦았지만 실에 묻은 젯소를 제거하는 것은 매우 까다로웠다. 그때야 비로소 '교수님의 말씀이 맞았구나'라고 생각했다.

시간이 지난 후 문득 인형을 떠올렸다. 인형에 대한 추억으로 어릴 적 가지고 놀던 인형을 잘 버리지 못하는데 10년, 15년이 지나도 보관하고 있었다. 오랜 세월이 훌렀음에도 이 인형들은 보존이 잘 되어있었다. 모든 게 실로 이루어지면 오히려 그 전체를 세탁할 수 있어 보존이 용이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두 가지 에피소드로 쓸모없다 여겼던 것들이 다른 가치를 지닐 수 있으며, 다른 상황에 놓이면 아주 유용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람도 이와 유사하다. 누군가에게는 좋은 사람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최악의 유형인 사람이 될 수 있고, 쓸모없다 여겼던 사람이 다른 이에게는 가장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는 다양함을 존중할 때 더 큰 세상을 접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작품이다.



無用之用(무용지용)1 Mixed media 10x8x16cm 2023



無用之用(무용지용)4 Mixed media 9x13x19cm
2023



無用之用(무용지용)2 Mixed media 4x8x13cm 2023

